

# 경제와 노후생활

## ■ 경제

- 동 향 : 한국은행, 기준금리 9개월째 동결
- 이 슈 : (경제) 소득계층별 소비여력과 시사점  
(산업) 서비스산업 2년 연속 흑자의 明과 暗

## ■ 노후생활

- 테 마 : 고령화시대, 일본의 Smart-Platina 사회 구상과 시사점
- 세 심 록 : 연작(燕雀)이 어찌 대봉(大鵬)을 부러워하라!
- 북 리 뷰 : 성장없는 번영(팀 잭슨 著)

□ 동향

○ 글로벌 이슈 : 일본, 2013년 기대 이하 성장

- 연간으로도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성장세를 보임으로써 아베노믹스에 대한 시장 신뢰가 약화될 우려
  - 2013년 연간 실질 경제성장률은 1.6%로 2012년 1.4%보다 0.2%p 높은 수준이나, 아베내각 출범 당초 기대 수준인 1%대 후반에 못 미침
  - 부문별로는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2012년 2.3%p에서 2013년 1.9%p로 0.4%p 하락했고, 순수출 기여도가 2012년 -0.9%p에 이어 2013년에도 -0.3%p로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

○ 국내 이슈 : 한국은행, 기준금리 9개월째 동결

-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
  - 기준금리 추이 : 한국은행은 2013년 5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0.25%p 인하한 이후 9개월 연속 동결
  - 동결 배경 : 국내경제의 회복세, 저물가의 장기화 등 금리의 인상과 인하 요인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원고 엔저 현상이 신흥국 금융 불안이 불거지며 다소 완화
  - 경기 판단 : 한국은행은 국내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어어가고 있으며 고용 역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는 등 국내 경기가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 연간	2013							2014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2/10	2/24
실물지표	GDP성장률(%)	2.0	1.5	2.3	3.3	3.9	-	-	-	-		
	제조업생산(%)	0.8	-1.8	-0.8	0.0	1.7	3.6	-1.0	2.7	-		
	소비자물가(%)	2.2	1.6	1.2	1.4	1.1	0.9	1.2	1.1	1.1	-	
	실업률(%)	3.2	3.6	3.1	3.0	2.8	2.8	2.7	3.0	3.5		
	경상수지(억달러)	480.8	99.7	198.0	189.8	219.7	95.1	60.3	64.3	-		
금융지표	국고채3년물(%)	3.13	2.68	2.67	3.01	2.90	2.83	2.94	2.94	2.89	2.87	2.85
	원/달러(원)	1,126.8	1,084.1	1,122.2	1,112.2	1,062.1	1,066.8	1,062.8	1,056.7	1,064.8	1,079.5	1,067.3
	코스피지수(P)	1,930.4	1,985.4	1,932.6	1,917.7	2,009.3	2,029.7	2,009.9	1,988.3	1,948.2	1,912.1	1,938.3

주 : GDP성장률, 제조업산업생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금융지표는 2/10~2/21 평균값임.

## □ 이슈 : (경제) 소득계층별 소비여력과 시사점<sup>1</sup>

### ○ 소비부진과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 (소비의 중요성) 민간 소비는 GDP의 과반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효과 (19.0명/10억원)가 매우 큼
  - 국내 소비가 증가하면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고용과 일자리가 늘어나며, 이는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져 다시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짐
- (고소득층 소비부진) 그런데 최근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됨
  -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2012년 고소득층의 월평균 실질가처분소득이 587만 원으로 저소득층의 66만 원에 비해 9배 이상 높음
  - 반면 고소득층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323만 원으로 저소득층 90만 원의 3.6배에 불과한 것은 고소득층의 소비가 다른 계층에 비해 부진하다는 점을 의미함

### ○ 소득계층별 소비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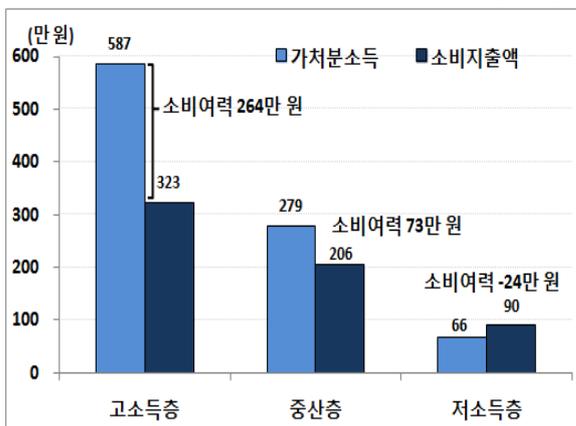
- (계층별 소득) 고소득층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2006년 538만 원에서 2012년 587만 원으로 연평균 1.5% 증가
  - 중산층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256만 원에서 279만 원으로 연평균 1.5% 증가했고, 저소득층은 69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연평균 -0.6% 감소함
  - 소득 구성별로 보면, 고소득층과 중산층은 근로소득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중산층은 자영업자의 감소했으며,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이 감소함
- (계층별 소비지출과 소비여력) 고소득층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006년 310만 원에서 2012년 323만 원으로 증가
  - 중산층은 196만 원에서 206만 원으로 증가했고, 저소득층은 91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감소함
  - 한편 계층별 소비여력(가구별 실질 가처분소득 - 소비지출)을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소비여력은 2006년 월평균 228만 원에서 2012년 264만 원으로 증가했다. 중산층의 소비여력은 59만 원에서 73만 원으로 증가했고, 저소득층은 월평균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감소 함
  - 중산층은 노후준비나 이자비용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소비여력이 미약하고, 저소득층은 소비여력이 전무한 상황인 반면, 고소득층은 소비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음

<sup>1</sup>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소득계층별 소비여력과 시사점” 14-6호(통권 577호), (2014. 02. 07.) 에서 발췌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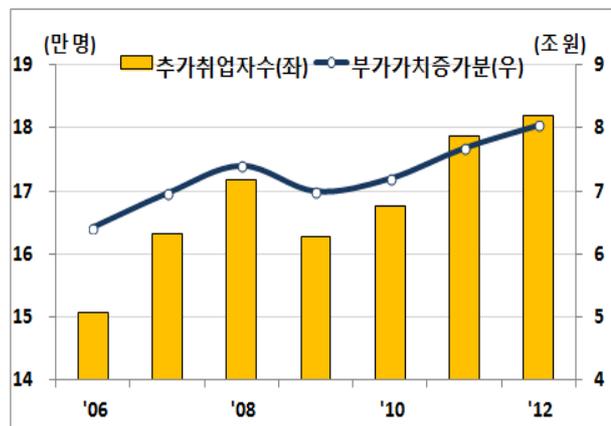
○ 고소득층 소비 확대 시 경제효과

- (고소득층 소비 확대 시 경제효과) 고소득층의 소비여력이 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고소득층 소비가 확대되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추정
  - 경제효과 추정을 위해 먼저 고소득층 가구가 소비여력 가운데 10%를 더 소비한다고 가정함
  - 이 가정을 기초로 2006년~2012년 기간 동안 고소득층의 추가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와 고용 효과를 추정함
  - 추정 결과 고소득층의 소비여력 중 10%만 추가 소비되어도 신규 일자리는 연간 16.8만 명, 국내 GDP는 연평균 약 7.2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소득계층별 월평균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2012)>



<고소득층 소비확대 시 경제효과>



○ 시사점

- 침체된 내수활성화를 위해 소비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의 소비지출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중·저소득층은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먼저 소득을 증대시켜야 함
  - 중산층의 경우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 저소득층은 근로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적 이전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전해 주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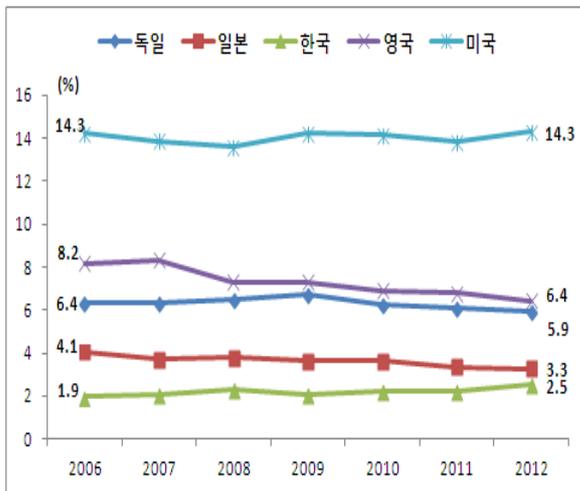
최성근 선임연구원 (2072-6223, csk01@hri.co.kr)

□ 이슈 : (산업) 서비스산업 2년 연속 흑자의 명과 暗<sup>2</sup>

○ 국내 경기 활성화 및 고용률 제고 등을 위해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혁신하기 위해서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 및 수출 산업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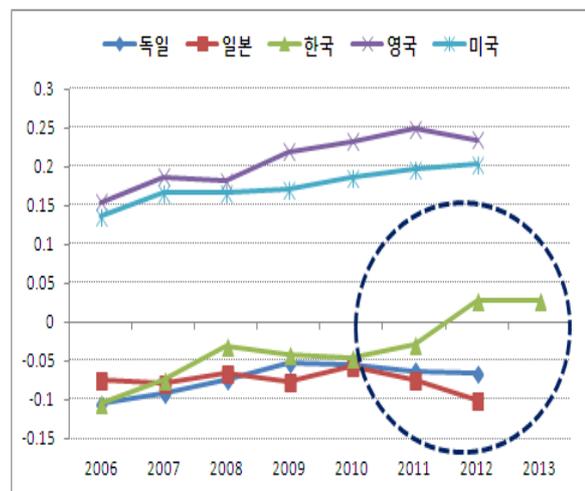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는 1998년 이후 적자를 지속하다 14년 만인 2012년에 처음 흑자로 전환
  - 2013년에도 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서비스 수지 흑자가 2년 연속 지속되고 있는데, 서비스 수지 흑자폭도 2012년 대비 소폭 증가함
  - 이에 따라, 세계 서비스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1.9%에서 2012년 2.5%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서비스 수출의 무역특화지수도 제조업 강국 독일, 일본에 비해 크게 개선되고 있음

< 서비스 수출 세계 시장 점유율<sup>3</sup> 추이 >



자료 : WTO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  
주 : 점유율=서비스 수출/세계 총 서비스 수출.

< 서비스 수출의 무역특화지수<sup>4</sup> 추이 >



자료 : WTO,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  
주 : 무역특화지수=(수출-수입)/(수출+수입).

<sup>2</sup>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서비스 2년 연속 흑자의 명과 暗” 14-5호(통권 576호), (2014. 01. 29) 에서 발췌 요약.  
<sup>3</sup> 세계 총 서비스 수출 시장에서 EU(27개국)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47%에서 2012년 42%로 하락함.  
<sup>4</sup>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는 각 품목의 수출입 차를 해당품목의 수출입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수출에 있어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임. 무역특화지수는  $-1 \leq TSI \leq 1$ 의 값을 가지며, 0에서 -1로 갈수록 수입특화의 정도가 높아짐. 반면 +1로 갈수록 수출특화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함. 무역특화지수는 국제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데 0과 1 사이 값이면 그 제품이 무역 흑자를 기록해 국제경쟁력이 강한 것을 뜻하고 -1에 가까울수록 그 제품이 적자를 기록해 국제경쟁력이 약한 것을 뜻함.

- 명(明) : 서비스 수지 개선의 긍정적 측면

- 첫째, 세계 서비스 수출 시장 규모가 큰 업종에서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sup>5</sup>
- 둘째, 한류 관련 콘텐츠의 수출 확대로 개인, 문화, 오락 서비스가 수출특화와 비교우위로 전환되었고 최근 해외건설 수주 증가로 건설서비스의 현시비교우위지수도 개선되고 수출경쟁력이 상승함
- 셋째, 서비스 수출의 업종별 편중성이 완화된 결과로, 한국의 서비스 수출 상위 5개 업종 편중도가 2008년 0.30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3년 0.22로 하락함
- 넷째, 수출 시장 다변화의 결과로, 금융위기 이후 개도국의 서비스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개도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암(暗) : 서비스 수지 개선의 부정적 측면

- 첫째, 2013년 기준 서비스 수지 흑자를 기록한 항목 중 운송과 건설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88%로 흑자가 이들 2개 업종에 크게 집중된 반면, 사업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고부가가치 업종은 서비스 수지 적자를 지속됨
- 둘째, 상품 수출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운송 및 사업 서비스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세계 경제 위기가 상품과 서비스 수출에 동시에 전이되는 취약한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서비스 수출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저부가가치 서비스 업종 중심의 흑자 구조를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기업 및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함

- 첫째,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인 사업서비스 및 지식 재산권 사용료의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둘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하여 각각의 서비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향 모색
-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부족한 인프라 보완이나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서비스업의 수출 업종 다양화
- 마지막으로, 서비스 수출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김민정 연구위원 (2072-6212, kimmj@hri.co.kr)

<sup>5</sup> 사업 서비스, 개인·문화·오락, 건설, 운송, 여행 서비스의 2012년 세계 수출 증가율은 각각 전년대비 3%, 1%, 2%, 1%, 4%를 나타낸 반면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각각 40%, 35%, 27%, 12%, 8%로 매우 높게 나타남

## □ 테마 : 고령화시대, 일본의 Smart-Platina 사회 구상과 시사점

### ○ 요약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은 재정부담 확대, 개호(간병)부담 가중, 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ICT(정보통신기술) 활용에 주목

일본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미션으로서 추구하는 'Smart-Platina 사회'는 '실버'를 넘어 전 세대가 이노베이션의 혜택을 누리며 활기차게 활동하는 초고령사회 실현을 지향하고 있으며, ICT를 활용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창조해 나가는 것을 의미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구상이 실현될 경우, 2020년 시점에서 ICT와 실버산업이 접목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로 17조엔, 고령자의 소비 활성화로 6.2조 엔 등, 1년간 총 23조 엔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고령자의 퇴직연령이나 사회활동 비율은 극히 낮은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사전적 대비가 요구

ICT를 통해 고령화에 대한 해법을 찾고 새로운 서비스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일본의 사례는 향후 정책수립에 있어 의미있는 방향성을 시사할 것으로 보임

또한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의 개념과도 부합하여 향후 이에 대한 활발한 전개가 기대

## □ 고령화 사회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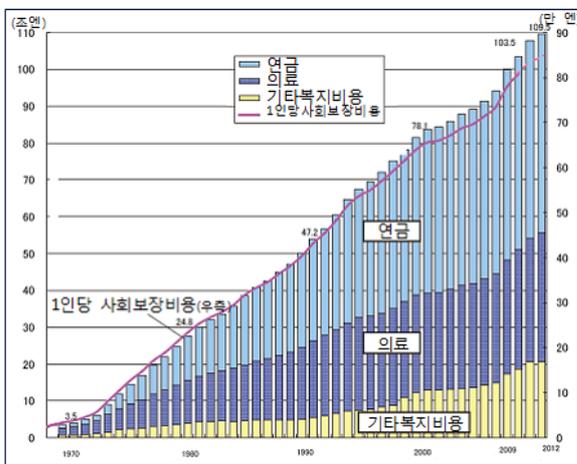
### ○ 정부의 사회보장비용 부담 증가

- 일본 전체 국민소득의 31%를 공적 사회보장제도 관련 비용이 차지
  - '2013 고령화 백서'에 따르면 일본의 2012년 10월 현재 고령화률은 사상 최고치인 24.1%를 기록하였으며, 2035년에는 33.4%로 국민 3명당 1명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상
  - 고령화 진전에 따라 연금, 의료, 기타 복지비용 등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관련 비용이 급증
  - 2012년 현재 일본의 사회보장비용은 110조 엔을 육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부 부채비율이 GDP 대비 219.1%로 OECD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
  - 1인당 사회보장비용도 1990년 40만 엔에서 2012년에는 85만 엔으로 2배 이상이 증가

○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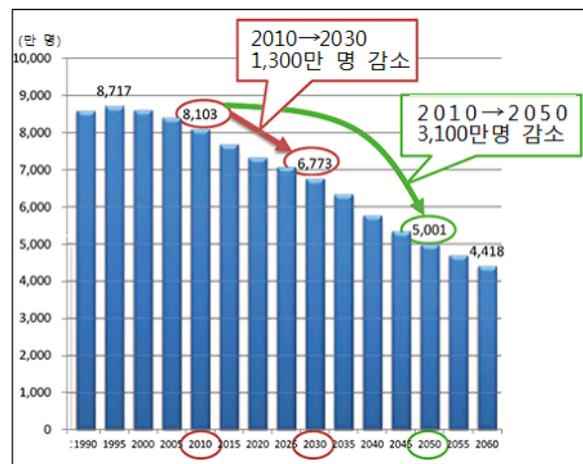
-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10년 전체 인구의 59%에서 2030년 54%로 감소가 예상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30년 일본의 전체 인구는 1억 1,522만 명으로 2010년 1억 2,805만 명에서 10% 가량 감소
  -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자는 2,924만 명에서 3,61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
  - 이에 따라 세수를 부담하는 경제활동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2010년 대비 2030년에는 1,300만 명이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

< 일본의 사회보장비 추이 >



자료 : 2013년 정보통신백서

< 일본의 생산연령 인구 추이 >



자료 : 일본 총무성, 「ICT초고령사회 구상회의 보고서」.

○ 고령자 단독세대 증가에 따른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 고령자 단독 거주, 또는 고령자 부부만 거주하는 세대가 증가
  - 일본 전체 세대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세대의 비중은 41.6%이며, 고령자 거주 세대 가운데 절반 이상인 54%의 세대가 고령자만 거주하거나 고령자 부부만으로 구성
  - 고령자 단독 또는 고령자 부부세대 수는 점차 증가하여 2030년에는 67.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상적인 쇼핑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변 사회와 단절된 고령자 고립, 고독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
- 단독세대 고령자 중 60%가 '고독사'를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간주
  - 2009년 동경 도내에서 사망한 고령자 중 자택에서 사망한 홀로 사는 고령자는 2,91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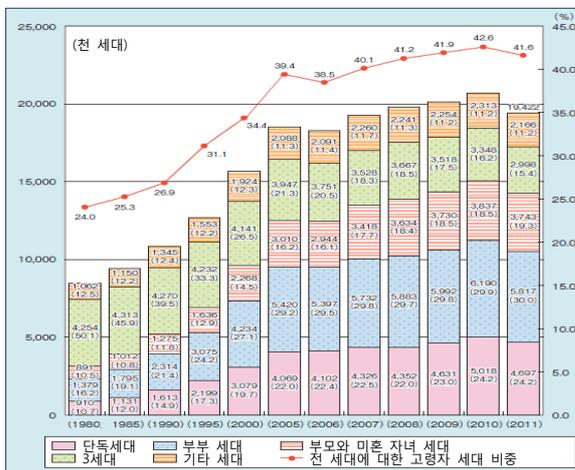
6 '고독사(孤獨死)'는 누구에게도 병구완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사망한 후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

- 내각부가 조사한 「고령자의 라이프스타일 조사(2009)」에 따르면, '고독사'를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인식하는 비중이 가족 등과 함께 거주하는 고령자의 경우 36.9%인데 반해, 단독세대인 경우 60%가 자신의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

○ 고령자에 대한 간병 부담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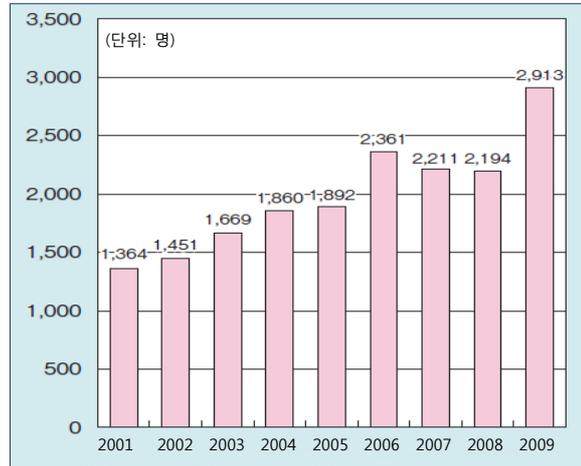
- 고령화 진전으로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늘면서 고령자에 대한 간병 문제가 확대
- 고령자의 간병은 현재까지 대부분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고령자 단독세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이 더욱 필요한 상황

< 일본의 고령자 세대 구성비중 >



자료 : 일본 내각부, 2013년 고령사회 백서.

< 자택사망 단독거주 고령자 수 추이 >



자료 : 동경도 검찰의무원, "사업개요", 동경도내 23 구 사망자 집계.

□ 일본 정부의 Smart-Platina 사회 구상

○ 고령사회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의 도구로서 ICT<sup>7</sup>활용을 극대화

- 고령사회 진전과 더불어 야기되는 다양한 정책적,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고령자의 생활을 사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총체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 일본 총무성은 2012월 12월, 관계부처와 각 계 전문가로 구성된 『ICT 초고령사회 구상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을 목표로 구체적인 ICT활용방안을 제시

<sup>7</sup>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정보와 통신에 관한 기술을 총칭하는 용어.

○ 'Smart-Platina 사회'는 전 세대가 ICT의 혜택을 누리며 활기차게 활동하는 초고령사회를 추구

- 일본 정부는 미래의 초고령사회의 미션으로서 'Smart-Platina 사회'를 제시
  - 'Smart-Platina 사회'란 '실버'를 넘어 전 세대가 이노베이션의 혜택을 누리며 활기차게 활동하는 초고령사회를 말하며, ICT를 활용해 안심하며 생활하는 건강한 삶을 창조해 나가는 것을 의미
- 'Smart-Platina 사회'가 추구하는 3가지 비전
  - 전 국민이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여 자립생활이 가능하고,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도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질 높은 의료·간병 서비스를 향유
  - 건강하며 의욕이 있는 고령자가 그의 경험과 지혜를 살려 현역세대와 함께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산활동과 사회 참여가 가능한 사회 실현
  -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ICT시스템 서비스'를 모델화하여 신사업을 창출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
- 이와 같은 정부의 시책이 실현될 경우, 2020년 시점에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로 17조엔, 고령자의 소비 활성화로 6.2조 엔 등, 1년간 총 23조 엔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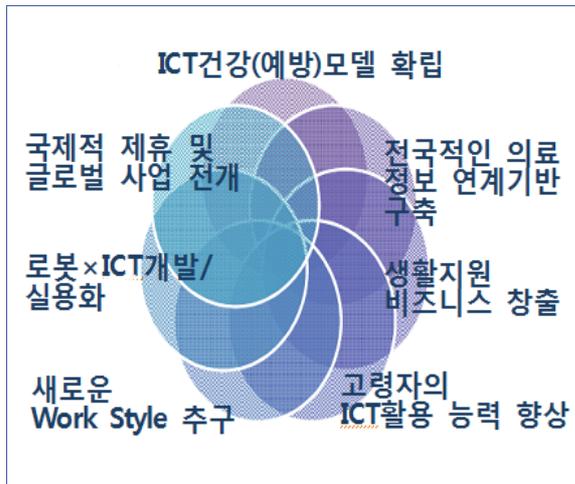
□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ICT의 활용 사례

○ 「의료·간병·건강」에 있어 ICT의 활용

- 「의료·간병·건강」 분야는 지금까지 원격의료와 원격 건강 상담, 지역 의료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ICT가 활용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
  - 동 분야에 있어 ICT의 접목은 초고령사회의 가장 큰 사회문제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의 사전예방으로 중증질환으로 이행을 지연시켜 건강수명 연장
- 고령자의 의료·간병·건강 정보데이터를 본인과 의료 종사자들이 공유·활용하기 위한 ICT기반의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정비 (그림 <의료정보 연계 인프라구축> 참고)
  - 의료시설과 재택의료, 간병 등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시의 적절히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건강관리 정보 분석을 통해 생활 습관 질병의 관리, 예방 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

- 니가타현 미츠키시는 'ICT시스템을 활용한 건강한 도시만들기' 프로젝트로 고령자의 건강 상황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방 의료를 진행한 결과, 고령자의 체력이 4.5년 젊어졌으며 의료비도 프로젝트 미 참가 그룹 대비 연간 10만 엔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

< Smart-Platina 사회 실행 프로젝트 >



자료 : 일본 총무성.

< 의료정보 연계 인프라구축 >



자료 : 일본 총무성.

○ 고령자의 고립화 방지 및 신변 안전 보호대책

-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가 강조
  - 고령자간 SNS를 통한 교류를 늘리고 고령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등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증가
- 동경의 기타구에서는 독신 고령자와 지역 서포터(고령 IT지원 서포터와 케어 서포터)를 결연하는 '기즈나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독신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과 신변의 안전 등을 상시 모니터링
  - '기즈나 프로젝트'는 독신 고령자와 케어 서포터가 매일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화상 통화로 건강 체크와 일상생활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시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통지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함
- 이를 위해 고령자의 ICT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IT활용 교육이 필요하며, 조작이 간단한 스마트 폰이나 필기 및 음성 인식으로 조작되는 IT기기를 개발 등도 활발

- 이 밖에 민간 경비업체들도 자체 시스템을 통해 위급상황에서 경비원을 호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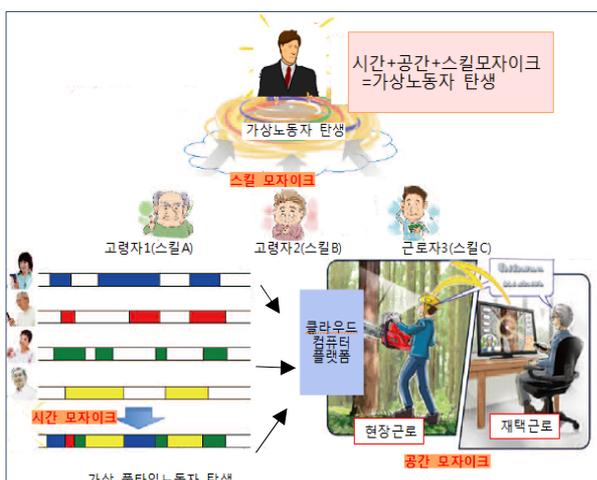
○ ICT를 활용한 고령자 일자리 창출

- ICT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일자리를 늘려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 기간을 늘리자는 것으로 최근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과 함께 더욱 활발한 논의가 전개
  - '고령자가 보유하는 스킬과 시간, 일할 수 있는 공간 등의 정보를 클라우드 컴퓨터 플랫폼을 통해 분석, 조합하여 현역세대 근로자와의 모자이크(조합)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창출 (그림 <ICT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참고)
  - 이러한 일자리 모델은 실제 치바현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고령자 뿐 아니라 육아 중인 주부나 장애인들의 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일자리 조합 모델로도 활용이 기대

○ 다양한 생활지원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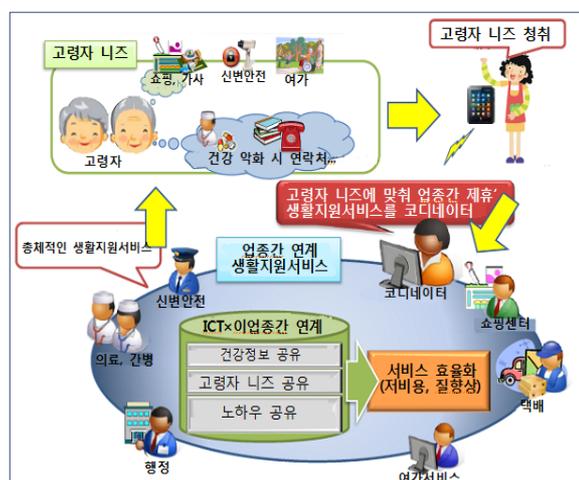
- 고령자의 니즈에 기초하여 고령자가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 기업,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다른 업종 간 업무제휴 등을 통해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 산업이 창출 (그림 <업종 간 생활지원서비스 연계> 참고)
  - 고령자 생활지원 코디네이터는 고령자의 니즈에 맞추어 쇼핑, 식사배달, 신변안전, 택배, 의료 등 각 산업을 연계하여 저 비용으로 고품질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

< ICT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자료 : 일본 총무성.

< 업종 간 생활지원서비스 연계 >



자료 : 일본 총무성.

- **고령자의 저하된 신체기능 및 인지능력을 보완하여 일상생활을 지원**
  -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장보기 로봇이나 간병 로봇이 실용화되고 있으며, 센서를 통해 사람의 언동에 따라 감정을 표현하는 로봇은 인지증(치매) 치료 등에 활용

## □ 시사점

- **우리나라도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ICT를 활용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자는 실천적 논의 제기**
  -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도 2013~14년의 중점 과제로 ▶고령자를 위한 ICT 교육 및 새로운 창업의 확대와 ▶신 기술과 서비스를 통한 실버 비즈니스의 확산을 제시함
  - 미래과학장조부는 금년 노인 IT일자리 창출과 노인의 IT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임
  - 또한 이에 앞서 산업부도 2009년부터 당뇨,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바 있으나, 국가적인 IT발전 수준에 비해 동 부문에 있어 ICT의 활용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임
-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노후대책 준비 미흡**
  - 우리나라의 고령자의 퇴직연령이나 사회활동 비율은 낮은 편이며 연금소득 대체율도 42.1%에 불과하는 등 노후대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기업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ICT를 통해 고령자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ITC와 타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실버산업 비즈니스를 창출하자는 일본의 사례는 향후 정책수립에 있어 의미있는 방향성을 시사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의 개념과도 부합하여 향후 이에 대한 활발한 전개가 기대됨

KB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미진(2073-5762, migin.lee@kbf.com)

## □ 세심록(洗心錄)

### ○ 연작(燕雀)이 어찌 대붕(大鵬)을 부러워하라!

장자의 소요유(逍遙遊)에는 대붕(大鵬)과 보잘 것 없는 잡새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대붕은 크기를 알 수 없는 북쪽 바다의 곤(鯁)이란 큰 물고기가 변한 것인데 날개를 펴면 구름과 같고 겹겹이 강한 바람이 불어야 남쪽 바다로 날아 갈 수 있다. 대붕은 한 번에 9만 리를 날아오르고 6개월을 난 후에야 비로소 쉬다고 한다. 이런 대붕이 나는 모습을 본 매미와 메추라기가 '나는 숲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 날아다닐 수 있는데, 대붕은 왜 구만리나 되는 하늘을 날아 남쪽으로 가려는 걸까?'라고 비웃었다고 한다.

과연, 매미와 메추라기가 대붕을 비웃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 매미의 경우, 수명은 2~5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기간을 땅속에서 보내며 지상에 올라와서는 1개월 정도 살다가 산란 뒤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생애가 매우 짧다. 즉, 세상 구경은 1개월 정도이고, 그 세상도 특정 지역에 불과한 것이다. 메추라기는 어떨까? 원래 철새인 메추라기는 작고 바쁜 날갯짓으로도 고작 50m 정도 밖에 날지 못한다. 그러니 어찌 매미와 메추라기가 비상을 위해 오매불망 큰 바람을 기다리는 대붕의 뜻을 알 수 있겠는가.

하지만, 대붕도 비상을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우선, 대붕은 그 거대한 몸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강한 바람이 필요하다. 바람이 약해 높이 날지 못하면 산과 봉우리, 나무들이 대붕의 날갯짓을 방해해 스스로 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9만 리를 날기 위해서는 맑은 시야와 함께 체력도 갖춰야 한다. 높이 날아 오른 후에 먼 앞을 바라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장도를 날아가려면 충분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등 준비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연작(燕雀; 제비와 참새)이 대붕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대붕이 되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봉정만리(鵬程萬里)를 꾀하는 대붕이라면 모든 일이 그러하듯 하나하나 준비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 괴테(1749-1832): 작가

## □ 북리뷰

- 제목 : 성장없는 번영
- 저자 : 팀 잭슨
  - '영국의 지속가능개발위원회(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경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생태경제학자이자 영국 서리 대학교 교수

## ○ 주요 내용

- 우리는 성장을 무한히 계속 될 것이라는 비이성적 전제 위에 서 있음
  -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 경제학자들에게는 성장 없는 경제라는 개념은 저주로 받아들여질 것이지만 생태주의자들에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은 저주로 받아들여짐
- 성장은 자원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 생태부채는 금융부채 만큼이나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들
  - 생태 부채와 금융 부채는 끊임없는 소비성장 추구에서 온전히 고려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경제성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대처하기 어려운 금융부채와 생태부채를 암묵적으로 방기하고 나아가 추구해 옴
- 부유함으로서의 번영, 효용으로서의 번영, 자기실현 능력으로서의 번영으로 3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져야 진정한 번영으로 정의함
  - 부유함으로서의 번영은 물질적 만족을 나타내는 것인데,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틀린 것으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이를 설명함
  - 상품의 질적 가치에 대한 만족을 가져다주는 효용으로서의 번영은 측정이 매우 어렵고 화폐가치로 둔갑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움<sup>8)</sup>
- 선진국 정부들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 행동을 전개하기 매우 좋은 기회임
  - 결국 더 이상 끊임없는 소비성장에 기초를 두지 않는, 탄력 있고 지속가능한 거시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2008년 금융위기가 전해준 가장 분명한 교훈은 현재의 경제성장 모델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선진국에서 성장 없는 번영은 더는 불가능한 유토피아의 꿈이 아닌 재정적으로나 생태적으로나 필연인 것임

8) 행복의 역설 연구는 GDP로는 효용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1인당 소득이 1만 5천 달러에 도달한 뒤에 행복의 역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행복(생활만족도) 수치는 소득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거의 변화하지 않는 것을 나타냄.

#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 HRI 리더스 포럼

###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만찬

### 장소

서울시 주요호텔

### 시간

19:00 ~ 19:35 만찬 및 인사교류  
19:35 ~ 19:45 경제 · 산업동향 브리핑  
19:45 ~ 21:00 주제 강연

####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 HRI리더스포럼 혜택

- 명사들의 주제강연(경제·경영·인문·사회·예술)
- CreativeTV(usociety.co.kr)WIP멤버십 제공
- 매회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제공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연회비

- 1명 가입시 100만원(1인)
- 2명 가입시 90만원(1인)
- 3명 이상 가입시 80만원(1인)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Tel. 02-2072-6246,6309  
Fax. 02-2072-6249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